

사계경작도, 구스미 모리카게 작품(1600년대)

에도 시대(1603~1867)의 화가 구스미 모리카게(1620~1690 경)가 당시 농촌 사람들의 사계절 생활을 생생하게 그려낸 한 쌍의 병풍입니다. 모리카게는 원래 융성했던 가노파에 속해 있었으나, 이후 그 문파를 떠나 일본 농촌생활을 묘사하며 독자적인 화풍을 확립했습니다.

중국에는 농촌생활을 주제로 한 특별한 그림양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림은 황제에게 백성들의 고된 삶을 알리고, 백성들에게 보답하는 통치를 실천할 목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그림양식이 무로마치 시대(1336~1573)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지자, 일본 화가들도 중국의 주제를 따라 풍경이나 의복, 풍속까지 모방했습니다.

한편, 모리카게의 ‘사계경작도’가 독특한 점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의 풍경과 생활상을 그렸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그려진 풍경, 건물 그리고 풍속은 17세기 일본을 묘사한 것입니다.

또, 사계절의 경과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져 있는 것도 기존과 다른 점입니다. 모리카게의 초기 사계경작도는 중국 양식을 따라 사계절의 흐름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화법이 발전함에 따라 이후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묘사방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가장 왼쪽이 봄이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겨울로 계절이 변하고 있습니다.